



코로나19 사태가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소상공인 및 관광업 대응 방안

박희석

연구위원

반정화

연구위원

정현철

연구원

김수진

연구원

—————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제297호

코로나19 사태가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소상공인 및 관광업 대응 방안

발행인 서왕진

편집인 최 봉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484X

발행일 2020년 4월 6일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소상공인 및 관광업 대응 방안

박희석 연구위원	반정화 연구위원	정현철 연구원	김수진 연구원
02-2149-1227	02-2149-1239	02-2149-1371	02-2149-1264
hspark@si.re.kr	jhpan@si.re.kr	geoculture@si.re.kr	kimsj@si.re.kr

요약	3
I. 주요 전염병과 코로나19 발병 현황	6
II. 코로나19가 서울경제에 미친 영향	10
III. 코로나19로 인한 서울경제와 주요 업종의 경제적 손실액	17
IV. 코로나19 대응 주요 지원 정책	23
V. 정책제언	27
부록	30

코로나19 유행으로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는 상황

코로나19가 전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코로나19의 유행은 전 세계 금융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세계 경제의 성장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경제도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소비심리가 악화(1월 104.2 → 2월 96.9)하여 민간소비 감소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국내 대형소매점 판매액과 신용카드 결제액(2월 38.1조 원, 전월 대비 25.7% 감소)은 줄어들었다. 소상공인들은 매출액과 방문객 감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광업계도 피해액이 상당하고 고용상황도 악화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과 파급효과를 내수와 외래관광객으로 구분하여 산정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의 소상공인과 관광업계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소상공인과 관광업을 중심으로 경제적 손실액을 추정하여 서울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경제적 손실액을 내수(소상공인과 국내 관광업: 음식·숙박, 오락·문화, 기타상품·서비스 업종)와 외래관광객(방한 관광객)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기간별 4단계 시나리오(초기, 확산, 수습, 회복)를 가정해서 손실액과 파급효과를 산정하였다.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피해액은 총 4조 4,13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코로나19에 따른 서울지역의 총 내수 피해액은 4조 4,137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항목별 손실액은 오락·문화 1조 3,867억 원, 음식·숙박 2조 321억 원, 기타상품·서비스 9,949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총 지출감소액(피해액)에 따른 생산유발 손실액은 5조 6,305억 원, 부가가치 유발 손실액은 2조 5,071억 원, 고용유발 감소 인원은 십억 원당 7만 3,768명으로 추정되었다. 음식·숙박 지출감소액 2조 321억 원이 서울시 타 업종에 미치는 총 생산유발 손실액은 2조 5,775억 원, 부가가치유발 손실액은 1조 522억 원, 고용유발 감소인원은 십억 원당 3만 3,689명으로 추정되었다. 오락·문화와 기타상품·서비스 지출감소액 2조 3,816억 원이 서울시 타 업종에 미치는 총 생산유발 손실액은 3조 530억 원, 부가가치유발 손실액은 1조 4,549억 원, 고용유발 감소인원은 십억 원당 4만 79명으로 추정되었다.

코로나19에 따른 외래관광객 관련 피해액은 총 5조 2,31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연간 외래관광객 총 손실액은 5조 2,311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항목별 손실액은 쇼핑이 2조 4,988억 원으로 손실 규모가 가장 크고, 개별 숙박비는 1조 1,020억 원, 식음료비는 6,328억 원, 기타는 9,975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쇼핑과 숙박, 음식 부문의 지출감소액이 서울시 타 산업 전체에 미친 파급 손실 규모는 생산유발 손실액 5조 7,586억 원, 부가가치유발 손실액 2조 5,211억 원, 고용유발 감소 인원은 십억 원당 5만 8,000명으로 전망되었다. 쇼핑지출 감소액 2조 4,988억 원은 주로 도소매 업종에 영향을 미쳐 서울 전체 산업 생산유발 손실액은 3조 5,582억 원, 부가가치유발 손실액은 1조 6,228억 원, 고용유발 감소 인원은 십억 원당 2만 9,240명으로 추정되었다. 개별 숙박비(1조 1,020억 원)와 식음료비(6,328억 원) 지출액의 1조 7,348억 원 감소는 주로 숙박 및 음식업종에 영향을 미쳐 서울시 산업 전체 생산유발 손실액은 2조 2,004억 원, 부가가치유발 손실액은 8,983억 원, 고용유발 감소 인원은 십억 원당 2만 8,760명으로 추정되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책을 준비하고 시행

중앙정부는 각 부처에서 금융, 세제, 재정, 고용, 방역, 소비활성화, 상생협력 등의 측면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광업계를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비롯하여 방역, 홍보·캠페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였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더해 소상공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이면서 단계별 정책지원으로 관광업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존 정책지원 효과 극대화 필요

서울시는 기존 정책지원 효과의 극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 대출자 등에게 신용보증 대상 확대, 보증료 인하, 보증절차 간소화, 시중 은행에 보증 위탁 확대, 은행권 퇴직자 일시 고용 등의 방안 마련으로 신용보증효과를 극대화하고 규모를 확대하며 대출 속도를 향상해야 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하를 건의하고, 지방세 납부 기한을 더 연장(기존 6개월 → 1년)하는 등 세제지원 정책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비 진작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존에 발표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여행사 등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또한 여행사, 호텔, MICE, 외식업 등 관련 협회 회원사는 물론 서울시 관광특구, 문화지구 등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관광 관련 사업체들의 피해 상황 파악과 건의사항 수렴으로 전방위적이고 촘촘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계 사업체에 대한 정책 지원 방안 마련

취약 소상공인과 관광사업체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피해가 큰 한계 소상공인과 관광 관련 사업체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보증심사제도 간소화 등을 통한 경영안정자금의 조속한 공급, 지방세 감면 비율 상향 적용 등이 있다. 취약 소상공인과 관광업계 사업체에는 집중적으로 방역을 지원하고 방역체계를 구조화할 필요도 있다. 소비자 방문 횟수가 많지만 매출이 적고 방역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관광업 사업체에 방역물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향후 방역 지원체계를 마련할 때 이들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국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 마련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의 관광산업은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 관광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연계 관광업의 줄도산 위험이 높아서 특별용자 지원 및 공공일자리 제공 등의 조속한 시행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정부, 서울시, 유관기관의 협력과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더불어 안전한 대한민국과 서울에 대한 이미지 제고, 서울시 유입 관광객 관리체계에 대한 대응책 마련, 주요 관광객 밀집 장소의 안전장치 마련과 문의처 안내 등으로 관광산업의 빠른 회복을 꾀해야 한다. 국내의 코로나19 안정화 상태와 별개로 해외의 감염 상황 악화는 서울의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의 국제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를 기회로 삼아 관광 관련 온라인 플랫폼 사업 확대, 관광스타트업의 서비스 고도화 등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광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과감한 지원정책 필요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과감한 전략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지원정책에 더하여 새로운 지원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간접적인 지원보다 직접적인 지원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기존의 지원 방식에 대해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상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긴급재난소득’을 들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입증이 어렵고, 다양한 피해사례로 인해 지원기준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 기존 지원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긴급재난소득은 제도가 단순하고 직접 받을 수 있는 혜택이며,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추경과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한다면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I. 주요 전염병과 코로나19 발병 현황

I 호흡기 감염병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질병

신종 감염병, 특히 호흡기 질환은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불안을 야기

- 감염병은 어디서나 발병할 수 있으며,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발생
 - 과거 60년간 신종 감염병은 세계 각지에서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
 - 새로운 병원균이 등장하거나 과거의 감염병이 재발병하기도 하는 등 새로운 감염병의 발생 유형은 다양
-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각종 감염병의 발생은 초국가적으로 증가 추세¹⁾
 - 20세기 후반부터 백신이 개발되고 본격적으로 활용되면서 다양한 감염병을 퇴치
 - 세계화로 인한 국제거래 증가, 인구이동 편의성 증진 등으로 병원성 미생물 전파가 이전 보다 용이하게 발생
- 호흡기 감염병은 파급효과가 크고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질병 중 하나
 - 사스는 2003년에 중국 광둥성에서 발병한 호흡기 질환으로 당시 중국과 홍콩 등 동아시아 지역 경제에 큰 타격
 - 메르스는 2012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병한 호흡기 질환으로 국내 경제와 관광에 부정적인 영향
 - 전 세계의 연결성이 강화될수록 신종 감염병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그림 1] 신종 감염병 지도

자료: KAIST 의과대학원 면역 및 감염질환 연구실(국민일보 재인용)

1) 박보라, 2018, 『국제사회의 감염병 대응 동향』, INSS 전략보고, 2018-30, 국가안전전략연구원

I 코로나19는 팬데믹(세계적 전염병 대유행) 상태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이전 호흡기 질환보다 전파력이 큰 것으로 추정

-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는 현재 전 세계로 전파
 -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는 2020년 3월 29일 0시 현재 636,533명이며,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
 -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 121,117명, 이탈리아 92,472명, 중국 81,439명 등의 순이며, 한국은 9,583명
- 코로나19는 사스나 메르스보다 전파력은 크지만, 치사율은 낮은 것으로 파악
 - 사스는 동아시아, 메르스는 중동과 아시아 등 국지적 수준에서 유행했던 반면에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
 -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에 대해 3월 11일(현지시간) 세계적 대유행을 의미하는 팬데믹을 선언
 - 코로나19는 사망자 비율이 40%에 육박했던 메르스와 10%에 육박했던 사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치사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

[표 1] 주요 감염병 발생 현황

구분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최초발생	2002년 11월 중국 광둥성	2012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	2019년 11월 중국 우한
발병지역	중국, 홍콩 등 아시아 32개국	중동, 아시아	전 세계
잠복기	2~10일	2~14일	2~14일(추정)
국내 발병 시기	2002.11~2003.07	2015.05~2015.12	2019.11~현재
세계 감염자 (치사율)	8,096명 (9.6%)	1,367명 (38.6%)	636,533명 (4.7%)
국내 감염자 (치사율)	4명 (0%)	186명 (21.0%)	9,583명 (1.6%)
국내 초동대처	첫 환자 발생 후 3일 만에 긴급장관회의 및 초동대처	초동대처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시각	첫 환자 발생 후 전염병 경보 주의 단계로 격상
주요 증상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 폐렴과 유사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증상	발열, 기침, 인후통, 폐렴
특징	사망자 중 50% 이상이 65세 이상	평균 환자 나이는 54.9세, 40~50대 다수	사망자 중 대다수는 기저질환을 보유

자료: 질병관리본부, 세계보건기구(WHO) 등(3월 29일 0시 기준)

I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는 전국의 4.28% 수준

국내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인구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집계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3월 29일 0시 기준 9,583명
 - 2020년 1월 20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코로나19에 대한 전염병 경보 단계를 주의 단계로 격상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는 2월 들어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020년 2월 18일에 31번 확진자 파악 이후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확진자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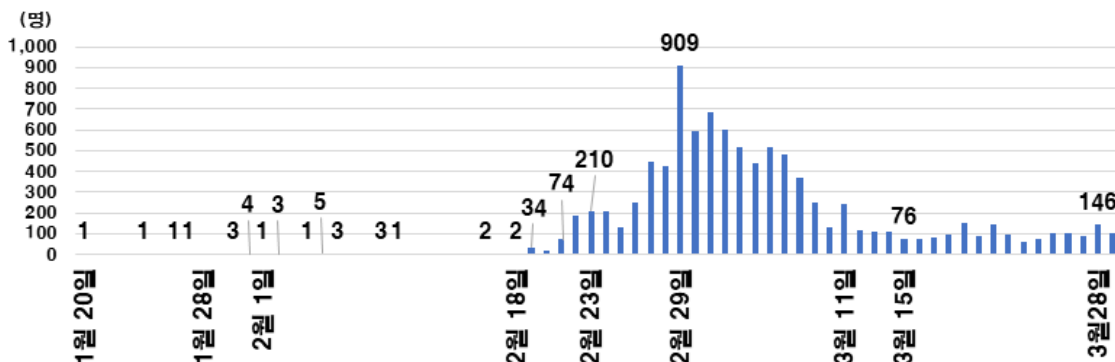
[표 2] 확진자 지역별 발생 현황(3월 29일 0시 기준)

(단위: 명, %)

지역	확진자 수	비율	지역	확진자 수	비율
서울	410	4.28	경기	448	4.67
부산	117	1.22	강원	34	0.35
대구	6,610	68.98	충북	41	0.43
인천	58	0.61	충남	127	1.33
광주	20	0.21	전북	12	0.13
대전	34	0.35	전남	9	0.09
울산	39	0.41	경북	1,287	13.43
세종	46	0.48	경남	94	0.98
검역	189	1.97	제주	8	0.08

자료: 질병관리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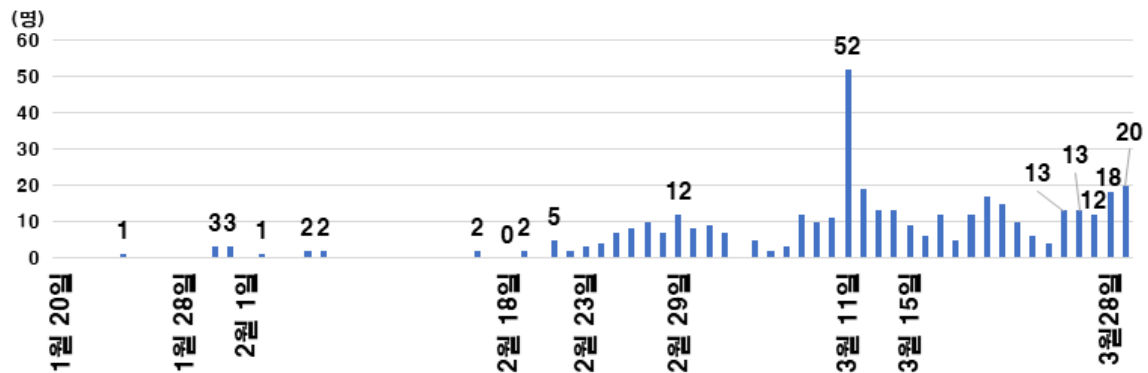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발생 초기에 일일 5명 이내였으나, 2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급증한 후 2월 29일부터는 감소 추세로 전환
 - 신규 확진자는 최초 발생일인 2020년 1월 20일부터 2월 17일까지 5명 이내를 유지하다가 2월 18일부터 급증하여 2월 29일에 정점에 도달
 - 2월 29일에 909명을 정점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추세



[그림 2]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

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자료, 3월 29일 0시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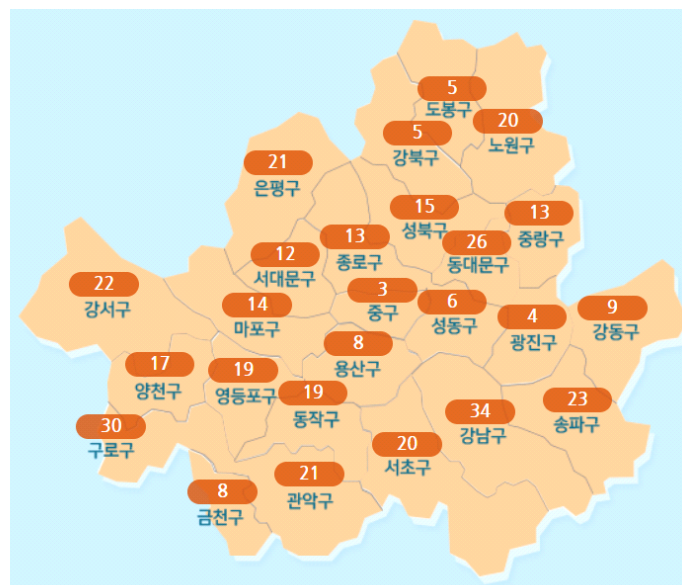
- 서울지역은 최근 집단발병 사례가 나타나는 등 감염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
 - 초기에는 국외 방문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입국한 이후 밀접접촉자들에게 전파
 - 서울지역 확진자는 3월 11일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으로 대폭 상승한 이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집단 감염과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발견되는 상황



[그림 3]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

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자료, 3월 29일 0시 현재

- 서울은 높은 인구밀도와 경제적 위상에 비해 확진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서울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020년 3월 29일 기준 410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
 - 인구, 경제, 출입국 인원 등 서울이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적은 편
 - 강남구(34명), 구로구(30명), 동대문구(26명) 등의 확진자가 다소 많은 편



[그림 4] 서울 자치구별 확진자 현황(2020년 3월 29일 10시 기준)

주: 기타 26명(서울 외 거주자)

II. 코로나19가 서울경제에 미친 영향

I 코로나19의 급속한 유행은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

사스와 메르스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

- 사스와 메르스의 확산 시작 후 1년 이내에 주가지수²⁾는 상승세로 반전
 - 사스와 메르스의 확산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후의 주가는 각각 13.72%, 12.44% 상승하였으며, 1년 후에는 각각 35.86%와 18.04%로 상승률이 확대
- 국내 종합주가지수(KOSPI)는 사스와 메르스 유행 시기에 하락하였으나, 하락 폭은 미미
 - 사스가 유행하기 시작했던 2002년 11월 말 724.8에서 2003년 7월 697.52로 3.8% 하락
 - 메르스가 유행하기 시작했던 2013년 5월 말 2,114.8을 기록하였으나, 2015년 11월 말에는 1,991.97로 5.8% 하락

코로나19는 이전 감염병에 비해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

-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가변동률은 마이너스를 기록
 - 반면 코로나19는 2019년 11월 확산 이후 주가변동률이 -20.23%에 달하는 등 이전 감염병과 다른 추이가 나타나고 있는 중
- 코로나19는 사스와 메르스보다 국내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
 - 코로나19가 국내에 첫 유입된 2020년 1월 20일 이후 종합주가지수의 변동폭이 커지고 있으며, 추세적으로는 하락 패턴이 우세
 - 2020년 1월 20일 코스피 종합지수는 2,262.64를 기록하였으나, 2020년 3월 27일 현재 1,717.73으로 하락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의 감염속도가 빨라지면서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경제적 비용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³⁾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피해 규모를 GDP의 0.1%인 770억 달러에서 0.4%인 3,47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

2)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세계지수 기준.

3) 황재철, 2020, 국제금융속보 제5525(2020.03.07.), 국제금융센터.

- 중국의 경제적 손실은 439억 달러에서 2,368억 달러,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신흥국 경제 손실은 157억 달러에서 422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

I 코로나19 유행으로 서울과 전국의 경제에 큰 타격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악화시켜 내수경제에 부정적 영향

- 상승하던 경제심리지수⁴⁾가 코로나19로 인해 하락 추세로 반전
 - 경제심리지수는 2019년 8월 88.8로 연중 저점을 기록한 이후 계속 상승하여 2020년 1월에는 95.7을 기록하는 등 상승 추세
 -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2월의 경제심리지수는 87.2로 추세 하락으로 반전하였으며, 2020년 3월에는 63.7로 2015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
-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국내 소비활동 위축 우려 등 소비의 하방 압력이 상승
 - 소비심리지수는 2020년 1월 104.2를 기록하였으나 2월에는 전월 대비 7.3p 하락한 96.9, 3월에는 전월 대비 18.5p 하락한 78.4를 기록
 - 코로나19가 계속 유행하면 국내 소비 활동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는 최악 수준, 서울은 전국보다 더 어려운 실정

-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⁵⁾(BSI)는 2020년 3월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이 갈수록 심화
 - 2020년 3월 소상공인 BSI는 29.7로 전월 대비 11.8p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43.6p 낮은 것으로 조사
 - 주요 생활밀접업종인 음식점업(24.2), 소매업(35.4), 개인서비스업(31.8) 등의 소상공인 BSI도 낮은 상황
 - 서울지역 소상공인 BSI는 29.4로 전월 대비 11.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동월 대비 46.8p 낮은 수치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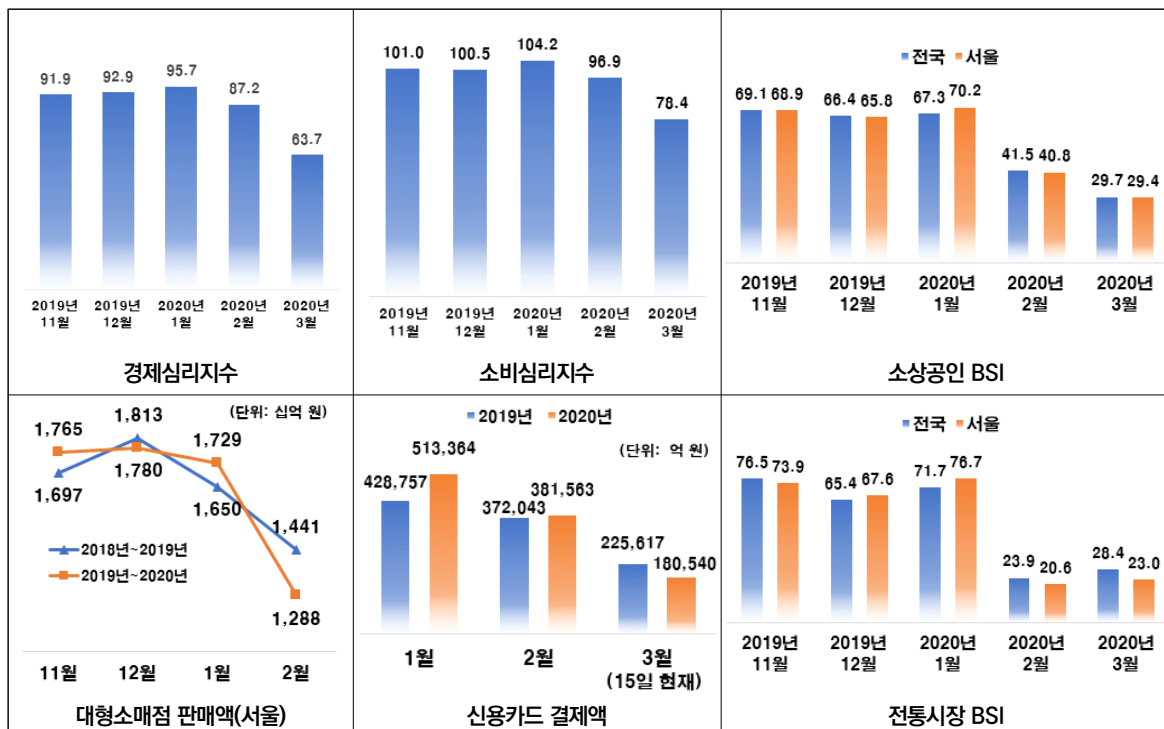
4) 경제심리지수는 기업과 소비자를 포함한 민간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지표로 100을 넘으면 민간의 경제심리가 과거보다 좋다는 의미이고, 100을 밑돌면 과거 평균보다 못하다는 뜻

5) 체감경기지수는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내며,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경기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호전될 것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음을 의미하고 100보다 높으면 경기 호전을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

- 전통시장 BSI는 2020년 3월에 전월 대비 상승하였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30p 이상 낮은 것으로 조사
 - 2020년 2월의 전통시장 BSI는 23.9로 가장 낮았으며, 2020년 3월에는 28.4로 전월 대비 4.5p 상승했지만 2019년 3월 대비 34.0p 낮은 수준을 기록
 - 서울지역 전통시장 BSI는 2020년 2월에 20.6으로 가장 낮았으며, 2020년 3월에는 23.0으로 2.4p 상승했지만 2019년 3월 대비 39.4p 낮은 수준을 기록

코로나19로 대형소매점 판매액 및 신용카드 결제액이 감소하는 등 민간소비 위축

- 코로나19 사태로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감소 추세
 -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019년 12월 1조 7,799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2020년 1월에는 1조 7,286억 원, 2020년 2월에는 1조 2,875억 원 등 감소 추세로 전환
 - 2020년 2월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 같은 기간의 89.3% 수준에 불과
-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비 위축이 본격화되면서 신용카드 결제액이 급격하게 감소
 - 8대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BC·롯데·우리·하나카드)의 2020년 3월 1일부터 15일 동안 신용카드 결제액은 18조 540억 원으로 전년의 80.0%에 불과



[그림 5] 코로나19 전후 서울시 내수 지표 추이

자료: 한국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계청, 신용카드사 종합

I 코로나19 사태가 소상공인에게 미친 영향은 치명적인 수준⁶⁾

코로나19 사태로 거의 모든 소상공인이 직접적 피해 경험

-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매출액 감소를 경험하여 경영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
 - 코로나19 이후 매출액이 감소하였다는 응답은 97.6%(매우 감소하였다 77.3%, 감소하였다 20.3%)로 대부분을 차지
 - 매출액 감소비율은 50% 이상 감소하였다는 응답이 47.4%로 가장 높았으며, 30%에서 50% 감소는 28.7%, 15% 이내 감소는 2.8%를 차지
- 코로나19 유행으로 소상공인 사업체의 방문객이 급속도로 감소
 - 방문객 변화 비율의 경우 감소하였다는 응답이 97.7%(매우 감소하였다 71.2%, 감소하였다 26.5%)로 대부분을 차지
 - 방문객 감소비율은 50% 이상 감소하였다는 응답이 45.7%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30%에서 50% 감소 27.5%, 15%에서 30% 감소 21.3%, 15% 이내 감소 4.1% 순

[표 3]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 현황

(N=1,070)

구분	매우 감소하였다	감소하였다	증가하였다	매우 증가하였다	변동 없음
매출액	77.3%	20.3%	0.2%	0.5%	1.8%
방문객	71.2%	26.5%	0.5%	0.3%	1.5%

자료: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들은 위생을 강화하는 방안 외에는 달리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

-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에 맞서 위생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처
 - 코로나19 사태 대응방안으로는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을 철저히 하는 개인 공중위생 강화' 56.1%, '사업장 청결 유지 강화' 34.0%였으며, '특별한 대응방안 없음'이라는 응답도 7.7%로 적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

[표 4] 코로나19 사태 대응방안

(N=1,066)

구분	비율
마스크 착용·손 씻기 등을 철저히 하는 개인 공중위생 강화	56.1%
사업장 청결 유지 강화	34.0%
특별한 대응방안 없음	7.7%
기타	2.3%

자료: 소상공인연합회

6) 소상공인연합회, 2020, '코로나19' 사태 관련 소상공인 2차 실태조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편

- 코로나19 사태 관련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
 - 코로나19 사태 관련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불만족(만족하지 않는다 29.9%,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8.9%) 응답이 만족(만족한다 22.5%, 매우 만족한다 6.6%)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

[표 5] 코로나19 사태 관련 소상공인 지원정책 만족도 (N=1,066)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음
6.6%	22.5%	29.9%	18.9%	22.1%

자료: 소상공인연합회

-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고 필요한 지원은 자금 관련
 - 코로나19 사태 관련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지원 정책의 1순위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50.5%)이었으며, 2순위는 ‘지역신보 특례보증 1,000억 원,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32.6%)
 - 코로나19 사태 관련 추가로 필요한 지원정책으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예산 대폭 확대’(55.7%),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특례보증 방안 확대’(32.2%), ‘피해 소상공인의 전수조사를 통한 현실적 지원 정책(피해보상금 등) 강구’(32.0%), ‘특례보증 이자율 추가 할인’(20.3%) 등이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

[표 6] 코로나19 사태 관련 만족도가 높은 지원정책과 필요한 지원정책 (N=1,018, N=1,056, 단위: %, 중복 응답)

만족도가 높은 지원정책	비율	필요 지원정책	비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	50.5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예산 대폭 확대	55.7
지역신보 특례보증 1,000억 원,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	32.6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특례보증 방안 확대	32.2
피해 소상공인 중 기존 대출에 대해 상환부담이 발생한 경우, 만기연장 지원	23.7	피해 소상공인의 전수조사를 통한 현실적 지원 정책(피해보상금 등) 강구	32.0
소상공인 대상 마스크 및 손소독제 배부 지원 및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진	20.5	특례보증 이자율 추가 인하	20.3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 3.4% → 2.9% 인하(한시적)	9.4	매장 위생환경 개선비용 지원	16.9
민간 쇼핑몰 내 온라인 특별기획전,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가치샵시다’ 플랫폼 입점	5.6	정부 차원의 소상공인 가게 이용 홍보	15.9
기타	16.7	마스크 및 손 세정제 등 방역용품 정부지원 확대	15.0
		중국 수출입 감소에 따른 지원대책 확대	4.5
		기타	6.3

자료: 소상공인연합회

I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 피해 심각, 장기화 추세

외래관광객 감소로 여행사, 숙박업, 외식업계 수익 급감

- 팬데믹 선언으로 관광객 이동이 불가능해지면서 관광 업계 피해액이 상당하고, 고용 상황도 악화
 - 중국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모두 취소로 여행업계가 어려움에 당면한 것으로 조사
 - 중국인 관광객의 서울 방문은 춘절 연휴 종료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감
 - 단체여행 취소율은 아웃바운드 95%(299억 원), 인바운드 73%(65억 원)(1/23~2/3, 12개 주요 여행사)
 - 여행업계 피해도 가중. 방한 외국인 관광객 77%가 여행 취소, 국내 관광은 87%, 해외 여행은 100% 취소(한국여행업협회 2월 말 3월 중순 국내 여행사 100여 곳 조사, 이데일리, 2020.3.24)
 - 관광숙박업계의 예약 취소율은 70%(한국여행업협회)에 달하고,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투숙이 높은 3성급 호텔의 타격이 심각
 - 여행사 직원, 관광통역안내사, 관광가이드 등 실직자 발생과 더불어 무급휴가 신청 등 관광업계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
- 과거 사스, 메르스 때보다 관광객 수나 소비력이 커진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 피해 규모는 훨씬 심각한 상황
 - 최근 들어 중국관광객 규모가 10여 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53만 명→ 600만 명) 하였고, 관광수입도 3배 증가(6조 3,544억 원 →18조 956억 원) 추세
 - 중국 관광객 100만 명이 감소하면 관광수입은 2.3조 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관광업계 피해는 더욱 상당할 것으로 전망(대외경제정책연구원, 2.12 기준)
- 서울 소재 관광업종의 피해 동향 조사(1.31~3.21)에 따르면 총 피해액은 약 1,932.1억 원이고, 여행업(110개), 호텔업(13개)의 피해 접수 사례가 다수 차지(서울시관광협회 회원사 기준)
 - 국내·외 여행업 및 일반여행업 등 서울시 여행업 중 110개의 업장이 피해를 신고하였고, 50일간의 여행업종 피해액은 약 1,714.4억 원으로 조사
 - 피해액은 대략적으로 관광호텔업(13개)이 89.1억 원,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1개)이 250만 원, 관광식당업(11개)이 14억 원, 기념품판매(면세)업(3개)이 41.2억 원
 - 국제회의기획업체(3개)는 23건의 개최가 취소됨에 따라 피해액이 19.3억 원이며, 기타 업체(10개)의 피해액은 54.1억 원으로 조사
 -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서울시 관광업계의 피해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표 7]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 관광업계 피해 동향

구분	피해접수업체	취소건수	취소인원(명)	피해금액(억 원)
국내·외여행업	23	831	24,289	59.4
국내여행업	4	155	1,010	28.6
국외여행업	40	8,042	23,460	73.1
일반여행업	43	213,719	276,627	1,553.3
관광호텔업	13	27,822	22,064	89.1
관광식당업	11	5,109	42,920	14.0
기념품판매(면세)	3	1,106	29,024	41.2
국제회의기획업	3	23	-	19.3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1	13	13	250만 원
기타	10	2,847	5,227	54.1
총계	151	259,667	424,634	1,932.1

자료: 서울시관광협회

조사기간: 2020년 1월 31일~3월 21일

조사대상 및 방법: 서울시관광협회 회원사 중 피해를 자진 신고한 업체를 대상으로 피해액 기록(접수 진행 중)

- 국제 행사 및 국내 대규모 행사 개최가 취소되면서 전시·컨벤션장과 관련 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 MICE 행사(전시, 국제회의, 인센티브 등)는 대부분 취소 또는 연기되어 피해가 가중
 - 서울의 MICE 행사가 1.28~2.11, 15일간 총 25건(56,410명) 취소·연기
 - 코엑스 개최 행사의 경우 국제 행사(반도체), 국내 행사(서울리빙디자인페어) 등이 취소되었고, 1일 대관료는 약 1억 원(부스 수천 개)으로 취소에 따른 피해액이 수억에 달할 것
 -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악화되면서 상반기 MICE산업은 패닉상태이며, 행사의 기획과 준비단계가 중장기에 걸쳐서 추진되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기간 MICE산업의 침체 예상
-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으로 내국인들의 심리적 불안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여가 및 외부활동, 여행 등이 일제히 중단되고 있어 2월의 소매판매가 급감
 - 비제조업(서비스업)의 소매판매 지수는 70~80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코로나19 발병 이후 하락하여 2월 현재 64 수준
 - 숙박업계는 판매 감소가 가장 심각한 상태로, 외래객의 급감과 더불어 내국인의 이용도 감소하여 소매판매 지수는 2월 현재 25 수준까지 하락
 - 스포츠시설, 공연시설 등의 일시적 운영 중단 및 취소로 예술스포츠계도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어 소매판매는 1월에는 79였으나 2월에는 57까지 하락

Ⅲ. 코로나19로 인한 서울경제와 주요 업종의 경제적 손실액

Ⅰ 코로나19 사태가 서울경제에 미친 총 피해액을 추정

소상공인 업계와 관광업을 중심으로 경제적 손실액을 추정하여 서울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

- 코로나19 사태로 서울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야는 소상공인 업계와 관광업
 -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등은 유동인구의 감소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영향으로 고객의 방문이 급격히 감소하여 매출에 큰 타격
 - 관광업은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국외로 떠나는 내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여 관광 관련 업종뿐만 아니라 전후방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을 내수와 외래관광객으로 구분하여 추정
 - 소상공인 업계와 관광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내수와 외래관광객 부문으로 구분하여 경제적 손실액을 추정
 - 내수는 소상공인 업계 및 국내 관광업, 외래관광객은 방한 관광객을 의미
- 코로나19의 확산 정도를 고려하여 기간별 4단계 시나리오를 가정, 손실액 및 파급효과 산정
 - 기간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이들을 각각 구분하여 분석
 - 업종과 시나리오를 가정한 후 원 단위를 기반으로 서울지역의 경제적 손실액을 추정하고 서울지역 투입산출표(2013년 기준)를 사용하여 총 손실파급 규모를 계산

[표 8] 손실액 및 파급효과 추정 절차

절차	내용
Step 1	○ 대상산업 선정(대분류 기준) - 서울지역의 경제 특성상 가장 피해가 큰 대표 업종 선택
Step 2	○ 원 단위 기반 손실액 추정 - 업종별, 기간별(초기/확산/수습/회복)로 상이한 시나리오 적용
Step 3	○ 업종별 손실파급 규모 산출 - 2013년 기준 서울지역 I/O를 사용하여 생산, 부가가치, 고용 손실 규모 계산

I 코로나19로 서울의 내수 총 피해액은 4조 4,137억 원으로 추정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성장률은 평균 2.6%p 하락, 이는 서울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

- 무디스를 비롯하여 국외 전문기관들은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평균 1.8%에서 -0.8%로 조정
 - 무디스는 국내 성장률을 기존 1.9%에서 0.1%로 하향 조정
 - 기관별로 성장률을 기존 1.1%(S&P)에서 2.5%(영국 캐피털이코노믹스)로 전망하였으나, 코로나19 유행 이후 0.1%(무디스)에서 -1.0%(영국 캐피털이코노믹스)로 조정

[표 9] 국내 성장률 전망치

(단위: %)

구분	무디스	영국 캐피털이코노믹스	S&P	평균
당초	1.9	2.5	1.1	1.8
조정(3월 23일 기준)	0.1	-1.0	-0.6	-0.8

- 성장률 하락 전망에 따라 전국은 50조 4,010억 원, 서울은 10조 3,570억 원의 국내총생산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국내 성장률이 1.8%에서 -0.8%로 2.6%p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전국 GDP는 50조 4,01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
 - 이에 따라 서울의 GRDP도 동반 하락하여 10조 3,57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

[표 10] 성장률 변화에 따른 GDP 증감액

(단위: 십억 원)

구분	2019년 GDP 잠정치	2020년 예상 성장률 및 GDP 추정치		증감액
		1.8%	-0.8%	
전국	1,913,964	1,949,053	1,898,652	△50,401
서울	393,477	400,496	390,139	△10,357

시나리오 분석으로 서울지역의 내수 총 피해액을 계산

- 가계지출 항목을 파악한 후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받는 항목을 선정
 - 2015년에 시행한 인구총조사를 기반으로 서울의 가구 수 성장률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예상 추정치로 연장
 - 코로나19 사태로 영향을 받는 지출항목으로는 ① 오락·문화에서 운동 및 오락 서비스·문화서비스·단체여행비, ② 음식·숙박에서는 식사비·숙박비, ③ 기타상품·서비스에서는 이미용 서비스·기타서비스

- 코로나19의 진행단계를 4단계로 나눈 시나리오를 가정
 - 코로나19 사태를 초기 단계 1개월, 확산 단계 3개월, 수습 단계 5개월, 회복 단계 3개월로 가정하여 총 손실액 추정
 - 각 단계별로 -10%, -90%, -50%, -20%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

[표 11] 시나리오별 내수 영향 정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단계	초기	확산			수습					회복		
영향 정도(%)	-10	-90			-50					-20		

코로나19에 따른 총 내수 피해액은 4조 4,13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⁷⁾

- 세부 지출항목별로 오락·문화 1조 3,867억 원, 음식·숙박 2조 321억 원, 기타상품·서비스 9,949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산정
 - 세부 지출항목별로는 식사비 1조 9,480억 원, 단체여행비 5,948억 원, 문화서비스비 2,746억 원 순으로 피해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 항목 중 지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식사비(13.5%)이며,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피해는 음식업종에서 가장 클 것으로 전망

[표 12]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도시 1인 이상, 2018년 기준)과 손실액 추정

	구분	금액(원)	비중(%)	지출감소액(억 원)
소비지출	전체	2,615,914	100.0	44,137
오락·문화	소계	204,116	7.8	13,867 ¹⁾
	운동 및 오락서비스	26,401	1.0	1,874
	문화서비스	38,744	1.5	2,746
	단체여행비	75,210	2.9	5,948
음식·숙박	소계	367,476	14.0	20,321
	식사비	353,437	13.5	19,480
	숙박비	14,039	0.5	841
기타상품·서비스	소계	198,103	7.6	9,949 ²⁾
	이미용 서비스	37,569	1.4	2,383
	기타서비스	26,460	1.0	954

주1: 오락·문화의 세부항목 중 표에 제시된 항목을 제외한 지출감소액의 합계는 3,299억 원

주2: 기타상품·서비스의 세부항목 중 표에 제시된 항목을 제외한 지출감소액의 합계는 6,612억 원

-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와 문화 및 기타서비스) 총 지출감소액(피해액)이 타 산업에 미치는 총 손실규모는 생산유발 5조 6,305억 원, 부가가치 유발 2조 5,071억 원, 고용 유발 7만 3,768명/십억 원으로 추정([부록 표 1] 참조)

7) 총 손실액 = 서울시 총가구 수 × 항목별 월평균 소비지출액 × 월평균 손실 시나리오 반영

-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 가구의 음식·숙박 지출 감소액 2조 321억 원이 서울시 30개 업종에 미치는 총 손실 규모는 생산유발 2조 5,775억 원, 부가가치유발 1조 522억 원, 고용유발 3만 3,689명/십억 원으로 추정
- 오락·문화와 기타상품·서비스 부문의 지출감소액 2조 3,816억 원⁸⁾이 서울시 30개 업종에 미치는 총 손실파급 규모는 생산유발 3조 530억 원, 부가가치유발 1조 4,549억 원, 고용유발 4만 79명/십억 원으로 추정

[표 13] 내수 부문 주요 업종별 파급 손실액

(단위: 억 원, 명/십억 원)

부문명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문화 및 기타 서비스		
	생산	부가	고용	생산	부가	고용
농림수산물	152	69	60	7	3	3
광산물	0	0	0	0	0	0
음식료품	429	74	208	82	14	40
섬유 및 가죽제품	100	20	35	322	65	114
목재 및 종이, 인쇄	38	13	37	163	54	159
석탄 및 석유제품	19	5	2	2	0	0
화학제품	19	5	9	56	13	26
비금속광물제품	2	1	1	2	0	1
1차 금속제품	2	0	1	6	1	3
금속제품	10	2	7	13	3	8
기계 및 장비	4	1	3	21	6	13
전기 및 전자기기	7	2	3	40	12	16
정밀기기	4	1	2	9	3	5
운송장비	2	0	0	62	11	14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29	12	40	38	16	54
전력, 가스 및 증기	16	4	11	30	8	20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40	20	25	34	17	21
건설	19	6	14	26	8	20
도소매서비스	1,642	714	1,365	1,015	442	844
운송서비스	184	58	178	240	75	231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20,416	7,909	30,160	491	190	725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378	168	224	955	423	566
금융 및 보험 서비스	612	302	243	918	453	364
부동산 및 임대	1,072	805	235	694	521	15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291	157	324	369	200	412
사업지원서비스	133	88	312	398	264	935
공공행정 및 국방	34	26	28	52	41	44
교육서비스	6	4	8	12	9	1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36	18	40	65	32	71
문화 및 기타 서비스	79	38	114	24,408	11,665	35,201
합계	25,775	10,522	33,689	30,530	14,549	40,079

8) 오락·문화 소비지출의 세부항목(운동 및 오락서비스, 문화서비스, 단체여행비)과 기타상품·서비스 소비지출의 세부항목(이미용 서비스, 기타서비스)의 합계

I 외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큰 폭의 손실 예상

2020년 연간 외래관광객 총 손실액이 5조 2,31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⁹⁾

- 코로나19 사태가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의 외래관광객 전체 지출감소액은 5조 2,311억 원으로 추산
 - 총 외래객 입국 수를 기준으로 손실액을 4단계 시나리오로 나누어 항목별 평균 지출경비에 환율을 곱하여 원화기준 매출 감소분을 추정
 - 세부 지출항목별 손실액에서는 쇼핑이 2조 4,988억 원으로 가장 크고, 그다음은 개별 숙박비 1조 1,020억 원, 식음료비 6,328억 원 순으로 추산
 - 외래관광객이 주요 고객인 숙박업, 면세점에는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더불어 소규모 판매점의 매출감소 타격도 심각할 것으로 전망

[표 14] 서울 외래 관광객 손실액 추정 규모

(단위: 억 원)

구분	총 지출경비	개별 숙박비	쇼핑	식음료비	기타
서울 손실액	52,311	11,020	24,988	6,328	9,975

- 타 기관의 코로나19에 따른 관광부문 피해 및 손실 추정에 따르면 최대 4조 6천억 원까지 손실액 발생, 관광객 약 200만 명 감소 예상
 - 기간별 시나리오에 따라 피해 및 손실액을 추정한 결과 단기(3월 말)는 1.4조 원, 중기(6월 말)는 2조 원, 장기화(6월 이상)되면 3.7조 원 피해 예상
 - 과거 사스와 메르스 때의 피해 수준(기간 및 관광객 감소) 고려 시, 관광산업의 피해액은 3.2조~4.6조 원의 손실액이 발생하고, 관광객은 125만~165만 명 감소 예상

[표 15] 타 기관의 관광부문 피해 및 손실 추정

기관(발표일)	피해 기간	피해액	관광객 감소
아시아개발은행 (3.6)	1~3월	11억 8,450만 달러 (1조 4천억 원)	-
	1~6월	16억 7,170만 달러 (2조 원)	-
	6월 이후	31억 3,330만 달러 (3조 7천억 원)	-
한국경제연구원 (2.12)	사스 피해 수준	3조 2천억 원	125만 명
	메르스 피해 수준	4조 6천억 원	165만 명
현대경제연구원 (1.31)	1~4월	최대 2조 9천억 원	202만 명

9) 총 손실액 = 외래객 입국 수 × 항목별 지출경비 × 환율 × 월별 시나리오 반영

외래관광객 감소로 인한 서울시 업종별 경제파급 손실액 추정

- 쇼핑과 숙박, 음식 부문의 전체 지출액 감소로 서울시 산업 전체 파급 손실규모는 생산 5조 7,586억 원, 부가가치 2조 5,211억 원, 고용 5만 8,000명/십억 원의 감소에 이를 것으로 전망([부록 표 1] 참조)
 - 쇼핑 지출감소액 2조 4,988억 원은 주로 도소매 업종에 영향을 미쳐 서울 전체 산업(30개 부문)에 생산 3조 5,582억 원, 부가가치 1조 6,228억 원, 고용 2만 9,240명/십억 원의 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추정
 - 개별 숙박비(1조 1,020억 원)와 식음료비(6,328억 원) 지출액의 1조 7,348억 원 감소는 주로 숙박 및 음식업종에 영향을 미쳐 서울시 산업 전체에 생산 2조 2,004억 원, 부가가치 8,983억 원, 고용 2만 8,760명/십억 원의 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추정

[표 16] 관광 부문 주요 업종별 파급 손실액

(단위: 억 원, 명/십억 원)

부문명	쇼핑			숙박·음식		
	생산	부가가치	고용	생산	부가가치	고용
농림수산물	4	2	2	129	59	51
광산물	0	0	0	0	0	0
음식료품	31	6	15	367	63	177
섬유 및 가죽제품	224	45	79	85	17	30
목재 및 종이, 인쇄	104	34	101	32	11	32
석탄 및 석유제품	2	1	0	16	4	2
화학제품	26	6	12	16	4	7
비금속광물제품	1	0	0	2	1	1
1차 금속제품	3	1	1	2	1	1
금속제품	9	2	6	9	2	6
기계 및 장비	8	2	5	4	1	2
전기 및 전자기기	17	5	7	6	2	2
정밀기기	7	2	3	3	1	2
운송장비	12	2	3	2	0	0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22	9	31	24	10	35
전력, 가스 및 증기	32	8	21	14	4	9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55	27	34	34	17	21
건설	33	11	25	17	5	12
도소매서비스	25,680	11,169	21,358	1,402	610	1,166
운송서비스	1,051	330	1,015	157	49	152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461	179	682	17,429	6,752	25,748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2,127	943	1,261	323	143	191
금융 및 보험 서비스	1,621	800	642	523	258	207
부동산 및 임대	1,801	1,352	395	915	687	20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821	444	915	248	134	277
사업지원서비스	737	489	1,731	113	75	266
공공행정 및 국방	59	46	50	29	23	24
교육서비스	29	21	41	5	3	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195	96	213	31	15	34
문화 및 기타 서비스	410	196	592	67	32	97
합계	35,582	16,228	29,240	22,004	8,983	28,760

Ⅳ. 코로나19 대응 주요 지원 정책

Ⅰ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책을 마련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보강에 전력투구

- 1차로는 방역 지원에 최우선, 동시에 경제적 영향 최소화과 피해업종·기업 어려움 해소에 총력
 - 방역대응체계 구축,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영향 종합점검, 보건 용품의 시장안정조치 시행
 - 소상공인에게는 ①재정, ②세제, ③금융, ④행정 등 지원
 - 관광업에는 ①재정, ②사용료, ③금융, ④행정 등의 측면 지원
- 2차로는 보다 강력한 피해극복과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신속히 집행 가능한 추가 대책을 마련
 - 주 대책은 ①철저한 방역 지원, ②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 ③소비와 투자 진작에 방점
 - 소상공인에게는 임대료 지원, 특별 금융지원, 세부담 완화 등을 지원
 - 관광업에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한국형 체크바캉스’ 지원 확대, 국민관광상품권 지급 등 지원
- 3차로는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여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담당
 - 추경예산의 4대 중점투자방향은 ①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②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③민생·고용안정, ④지역경제·상권살리기
 - 소상공인에게는 ①대출, ②고용, ③소비활성화 등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

[표 17]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및 경기보강의 큰 틀

대책 및 규모		주요 내용
1차	○ 기 조치: 약 4조 · 재정 0.3, 금융 4.0	- 방역 대응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1,092억) - 지자체 예비비 등(1,622억), 공항사용료 감면(300억) 등 - 소상공인 등 정책금융 신규 공급(2조), LCC 대상 운영자금 융자(0.3조), 매출채권 인수 확대(0.2조) 등
2차	○ 행정부: 약 7조	- 5대 소비쿠폰,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등 재정지원(2.8조) -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세수감 1.7조) - 소상공인 최저금리 대출, P-CBO 발행 등(2.5조)
	○ 공공·금융기관 등: 약 9조 · 한은 5.0, 공공기관 0.5, 금융 3.7	- 금융중개지원대출(5조, 한은) - 공공기관 투자 확대(0.5조) - 지역신보 재원확충 통한 보증 확대(0.5조) - 금융권 금융공급 확대 등(3.2조)
3차	○ 추경: 11.7조	-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3조) -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2.4조) - 민생·고용안정 지원(3.0조) -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0.8조) - 세입경정(3.2조)

자료: 기획재정부

I 정부와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

- 정부는 소상공인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수립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①대출, ②보증, ③ 카드 등 금융 3종 대책과 세제 지원
 -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를 인식하여 국가 재정을 투입,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책 마련
 - 방역, 소비활성화, 상생협력 등 다각도로 소상공인을 지원
-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의 강점인 현장에 기초한 지원정책 수립
 - 재정정책과 함께 고용 확대 등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
 - 방역, 소비활성화, 상생협력 등 다방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

[표 18]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대책

분류	구분	중앙정부	서울시
금융	대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특별자금지원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 한시적 인하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
	보증	특례보증 프로그램(신보, 기보) 우대보증 프로그램(신용보증기금)	-
	카드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 지원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추진	-
세제	편의	세금 납부기한 연장	-
	세금감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지방세 기간연장 등 세제지원
재정	지출	재정 상반기 집중 집행	시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한 내수 진작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규모 및 할인을 확대	서울사랑상품권 판매 한도 상향
고용	일자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방역	방역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역 지원	전통시장 방역 실시
	물품	소상공인 마스크 35만 개 긴급 지원	-
	인증	-	전통시장 클린시장 운영 '클린존' 마크
소비 활성화	판로 지원	민간쇼핑몰 내 '온라인 특별기획전' 마련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확대
	상권 활성화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추진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확대
	캠페인	외식소비 활성화 및 기피 심리 확산 방지	화훼농가 지원을 위한 꽃 소비 촉진
	규제완화	-	1회용품 한시적 사용 허용
상생 협력	임대료 지원	임대료 인하분 50%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	-
	임대료 인하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소유 재산 임대료 인하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관리비 감면
기타	프로그램	피해점포 정상화 프로그램 지원	-

자료: 각 부처 보도자료

I 전방위적이고 단계별 추진 정책으로 관광업 위기 극복 노력

- 정부는 전방위적인 정책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관광업의 위기에 대응
 - 코로나19의 확산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에서는 관광업계를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실시
 - 실태조사, 방역, 홍보·캠페인, 분쟁해결, 대규모 행사 개최 조정 등 각종 대응책 실시
 - 내국인의 국내 관광활동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국내 휴가비용 지원 확대, 관광명소 방문 후 추천을 통한 관광상품권 제공, 국립 예술시설 입장료 할인 등 시행 예정
- 특별용자, 재정지원 및 공공일자리 제공 등 단계별 정책을 통한 서울 관광업 위기 극복
 -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의 경제난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여 단계별(단기, 중기, 장기)로 위기 극복 대응책을 마련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 즉시 시행, 현장 조사를 통한 업계 피해 상황 실시간 파악
 - 대출 및 세제 지원, 공공일자리 등 직접 지원으로 관광업계의 피해에 즉각 대응하고, 영세 관광업자의 금전 피해 타격을 최소화
 - 침체된 관광시장의 활력을 찾기 위한 홍보 및 캠페인, 관광상품 개발, 위기대응 기금 조성 등 중장기적 대응으로 관광수요 확대와 건강한 관광생태계 구축

[표 19] 코로나19 관련 관광업 대응책

분류	구분	중앙정부	서울시
금융	대출	중소 관광업체 무담보 특별용자, 피해 공연업계 긴급생활자금 융자 지원 항공업계 긴급 융자 및 수익 보전, 여객운송 중 단 선사 등 긴급경영자금 대출	관광업 긴급 특별용자 지원
	금리인하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확대·금리 인하	-
세제	감면	숙박업계 재산세 감면 검토	행사 취소 수수료 환불 및 감면 검토
	기한연장	세금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관광, 여행, 공연 관련, 음식·숙박, 여객운송업 등 중소업체 납기 연장 및 세무조사 유예
재정	비용지원	숙박업계 일반용자 지원대상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국립 예술시설 입장료 할인 관광상품권 발급(추첨제)	영세여행사 보험 비용 일부 지원 우수관광상품 개발비용 한시적 확대 관광스타트업 지원확대 서울관광진흥기금 조성 검토
	인프라 구축	관광특구 문화재 등 시설 현대화 조기 추진	영화 '기생충' 촬영지 등 투어코스 개발 DMZ 인접지자체와 공동 평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고용	공공 일자리	-	관광·예술계 종사자/소상공인 공공일자리 제공 MICE 전문 인력 양성 및 청년일자리 제공

분류	구분	중앙정부	서울시
방역	방역지원	숙박, 외식업체 방역물품 지원·방역 강화 확진자 방문 업체에 소독 서비스 제공	공공장소 및 밀집지역 방역
	물품	전국 공연장에 방역용품 지원 주요 관광안내센터 손소독제·마스크 공급	숙박업소 내 감염 예방수칙 포스터, 안내문, 배너 등 설치(영어, 중국어), 마스크·손소독제 제공
홍보· 캠페인	관광객 유치	외식업 맞춤형 대응요령 포스터 배포 외부식당 이용 활성화 및 주 2회 이상 외부식당 이용	Safe Seoul, 안전한 관광도시 서울 집중 홍보 해외관광객 유치·글로벌 마케팅 박원순 시장의 중국 응원메시지 전달
기타	실태조사	유원시설 점검 산업별(관광) 현장간담회 개최	서울관광 민원센터 운영(업계 피해 파악·상담), 서울관광 위기관리TF 구성 서울관광협회와의 관광업계 피해 동향조사
	행사 일정	국립공연장, 국립예술단체 공연 잠정 중단, 국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 잠정 휴관	1~2월 행사 중 일부 취소·축소·연기 서울 관광안내소 운영시간 축소 및 잠정 운영

V. 정책제언

I 기존 지원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취약 소상공인과 관광업체를 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련한 지원정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 모색

- 신용보증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부담을 낮추며, 필요한 시기에 빠른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 이미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관광업체 등에게도 원활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보증대상을 확대하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증료 인하 등을 추진
 - 보증절차 간소화 방안 모색, 시중 은행에 보증 위탁 규모 확대, 은행권의 퇴직자 일시 고용으로 보증심사인력 충원 등 보증과 대출 속도 향상을 유도
- 세제 지원정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서울시는 자체 세원인 지방세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세원인 국세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
 -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생계형 사업체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업체들이나 관광업 관련 사업체들에게도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
 - 서울시 차원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여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조정하여 사업체의 세금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
- 소비 진작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규모와 사용처 확대를 검토
 - 기존에 발표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과 더불어 규모를 확대하며, 만약 재원이 부족할 시에는 지방채 발행도 적극 검토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취약 소상공인과 관광 관련 사업체 우선 지원 방안 마련

- 한계 소상공인과 관광사업체 등에 대한 정책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업종인 외식업, 관광업, 소매업 등의 소상공인 사업체에 정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조정
 -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있어서 한계 소상공인과 관광 관련 사업체에는 보증심사제도 간소화 등을 통해 조속히 경영안정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 취약 소상공인과 관광 관련 사업체에 방역을 지원하고 방역체계를 구조화하는 등의 조치 필요
 - 소비자 방문 횟수가 많으나 방역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관광 관련 사업체에 방역물품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향후 방역 지원체계를 마련할 때 소상공인과 관광업체를 우선 고려

I 국제 상황의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유연성 있는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

관광산업 현장 피해 파악 및 복구를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으로 위기 상황 극복

- 전례 없는 관광산업의 컷다운 사태로 단기 대응책의 조속한 집행처리와 유관기관들의 협력 절실
 - 국내 상황의 안정화 추세와 별개로, 해외의 감염 상황 악화가 세계 관광시장의 큰 타격으로 이어지면서 서울시의 관광산업에도 여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관광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연계 관광업의 줄도산 위험이 높아 특별용자 지원 및 공공일자리 제공 등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 및 서울시 유관기관들의 협력과 발 빠른 대응이 관건
 - 여행사, 호텔, MICE, 외식업 등 관련 협회 회원사는 물론 서울시 관광특구, 문화지구 등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관광 관련 사업체들의 피해상황 파악과 건의사항 수렴으로 전방위적이고 촘촘한 대응책 요구

상황 안정화에 대한 재도약 시스템 구축과 회복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 수요 확대 노력

- 코로나19 글로벌 대응 수준을 주시하면서 해외 주요 국가별 관광대응 전략을 마련
 - 국내 상황의 개선 속도를 고려하고 해외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시 관광활성화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별 세분시장에 대한 맞춤형 관광홍보마케팅 방안 마련
 - 코로나19 해외유입 경로를 차단하여 국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우선이며, 상황이 개선되어 관광객의 유입이 가능해지더라도 방한 외래관광객 관리체계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
 - 심리적 불안의 완전 해소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주요 관광객 밀집지역 및 장소에 안전장치와 비상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기적 대응 체계 마련
-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및 비대면 서비스 확대, 온라인/SNS 등의 활용 증가 등 일상생활 패턴의 변화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확대 가능성을 시사
 - 관광 분야 온라인 플랫폼 사업 확대와 참여 가능한 관광스타트업의 서비스 고도화 등으로 미래지향적 관광시스템 개발
 - 온라인상에서의 관광안내시스템 및 민원접수 등과 같은 환경 조성으로 관광편의 개선 인프라를 확대하고, 온라인 관광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도 시스템 개선

I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과감한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간접적인 지원보다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지원정책의 방향이 수정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
 -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유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장기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
 - 기존 지원정책과 더불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정책의 방향이 달라져야 하며, 과감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시점
- 추가되는 지원정책은 간접적인 지원보다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
 - 소상공인과 관광 관련 사업체들은 현재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으며, 그 어느 때보다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
 - 새롭게 마련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은 직접적이고 빠른 효과가 나타나는 방안이 적절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지원정책인 ‘긴급재난소득’ 시행

- 직접적인 지원은 기준이 명확하여 제도 설계가 까다롭지 않다는 것이 장점
 - 코로나19 등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의 입증은 쉽지 않으며, 다양한 피해사례로 인해 지원 기준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
 - 이로 인해 지원정책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되는 등 불만이 가중되는 역효과도 발생
- 긴급재난소득은 수혜 당사자가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원 방안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으로 급부상
 - 긴급재난소득은 제도 설계가 상대적으로 단순하며, 수혜 당사자가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방안의 대표적인 사례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홍콩과 마카오는 현금성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미국도 직접적인 현금보조를 계획 중
- 정부의 추경과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 등으로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한다면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추경, 지방채 발행, 예비비 편성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면 긴급재난소득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긴급재난소득을 지원하면 소비가 늘어나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

부록

[부록 표 1] 내수 및 관광부문 전체 파급 손실액

(단위: 억 원, 명/십억 원)

부문명	내수			관광		
	생산	부가가치	고용	생산	부가가치	고용
농림수산물	159	72	63	133	61	53
광산품	0	0	0	0	0	0
음식료품	511	88	248	398	69	192
섬유 및 가죽제품	422	85	149	309	62	109
목재 및 종이, 인쇄	201	67	196	136	45	133
석탄 및 석유제품	21	5	2	18	5	2
화학제품	75	18	35	42	10	19
비금속광물제품	4	1	2	3	1	1
1차 금속제품	8	1	4	5	2	2
금속제품	23	5	15	18	4	12
기계 및 장비	25	7	16	12	3	7
전기 및 전자기기	47	14	19	23	7	9
정밀기기	13	4	7	10	3	5
운송장비	64	11	14	14	2	3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67	28	94	46	19	66
전력, 가스 및 증기	46	12	31	46	12	30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74	37	46	89	44	55
건설	45	14	34	50	16	37
도소매서비스	2,657	1,156	2,209	27,082	11,779	22,524
운송서비스	424	133	409	1,208	379	1,167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20,907	8,099	30,885	17,890	6,931	26,430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1,333	591	790	2,450	1,086	1,452
금융 및 보험 서비스	1,530	755	607	2,144	1,058	849
부동산 및 임대	1,766	1,326	387	2,716	2,039	59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660	357	736	1,069	578	1,192
사업지원서비스	531	352	1,247	850	564	1,997
공공행정 및 국방	86	67	72	88	69	74
교육서비스	18	13	25	34	24	48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101	50	111	226	111	247
문화 및 기타 서비스	24,487	11,703	35,315	477	228	689
합계	56,305	25,071	73,768	57,586	25,211	58,000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